

우리는 디지털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,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.

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	보 도 자 료	
보 도 일 시	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배 포 일 시	담 당 팀	데이터활용기술팀
2026. 09. 30.(수) 9:00	담 당 자	권무석 팀장(053-230-4261) 장유영 선임(053-230-4263)

NIA, 「AI데이터안심활용센터」 개소

- 기존 「K-ICT 빅데이터센터」를 「AI데이터안심활용센터」로 개편 -
- 데이터 활용 고신뢰존과 협업·소통을 위한 AI라운지로 재탄생 -
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원장 김형철, 이하 NIA)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배경훈, 이하 과기정통부)는 기존 K-ICT 빅데이터센터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, 명칭을 「AI데이터안심활용센터」로 리브랜딩하여, 9월 29일(화)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.
- K-ICT 빅데이터센터는 2013년 개소 이래 데이터 분석·활용 지원 인프라로 운영됐으나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안심구역 강화 및 AI 기술 발전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으로 역할 및 기능을 고도화하게 되었다.
- 먼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데이터 분석·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하고, 데이터 분석실을 기존 1실에서 5실로 증설하는 한편 데이터 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업 소통을 위한 AI라운지를 신규 조성하는 등 공간을 재편했다.
- 특히 데이터안심구역*, 데이터결합지원센터, AI라운지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하나의 데이터 고신뢰존(High-Trust Zone)으로 통합 운영

하여 안전한 고성능 AI 분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고도화 하였다.

* 데이터 안심구역 : 공개가 어려운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안 공간

- 우선 이번 리브랜딩을 기점으로 NIA의 「AI데이터안심활용센터」가 지역별 데이터 안심구역들을 클라우드로 연계하여 물리적 장소의 한계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- 또한 데이터결합지원센터는 최신의 보안 규정 및 인증 기준에 맞게 고도화 하고 ‘데이터 고신뢰 영역’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. 가명처리·결합전문기관·안심구역 공간으로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AI라운지는 민간, 공공,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모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 공간 조성함으로써,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 발굴과 교류를 촉진하고 데이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개소식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KDATA)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신용보증기금, 부산테크노파크 등 데이터 안심구역 및 결합지원센터 유관 기관들이 참석하여 「AI데이터안심활용센터」와의 협력을 논의하였다.
- 김형철 NIA 원장은 “AI데이터안심활용센터 개소로 가명정보 결합-활용을 위한 물리적·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.” 며, “센터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.” 라고 밝혔다. <끝>

붙임. 사진자료

<AI데이터안심활용센터 개소식>



[AI데이터안심활용센터 개소식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데이터본부 신신애 본부장(우측에서 두번째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영미 사무관(중앙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K-DATA) 등이 참석했다.]



[과기정통부, NIA, 개인정보보호위, K-DATA, 신용보증기금, 부산테크노파크 등 안심구역 및 결합지원센터 유관 기관들이 참석하였다.]